

승리의 역사 '봉오동 전투' 반일 바람 탈까



독립군 황해철역을 맡은 유해진



독립군 부대장 이장하역의 류준열

1919년의 3·1운동 이후 만주에서 독립군의 항일 무장투쟁은 더욱 거세졌다. 이듬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대한군무도독부가 연합해 만주 봉오동에 집결,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일본군 월강주격대대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독립군 근거지인 봉오동 공격에 나섰다. 독립군은 봉오동 끝까지 일본군을 유인해 큰 승리를 거둔다. 이것은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의 최초의 대규모 전투이자, 독립군의 첫 승리였다.

오는 8월 7일 개봉하는 영화 '봉오동 전투'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투를 스크린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역사책에 봉오동 전투와 함께 쓰인 영웅 홍범도가 아니라 일본군을 봉오동까지 유인한 이름 모를 독립군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군의 만주 독립군 토벌 작전이 시작되자 독립군 황해철(유해진 분)과 독립군 부대장 이장하(류준열), 그리고 황해철의 오른팔 마병구(조우진) 등은 일본군을 봉오동까지 유인하고 지형을 이용해 싸우기로 한다. 일본군은 절대적인 수적 우위로 독립군을 압박해오고, 평범한 촌민이었다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독립군들

영웅 홍범도 아닌 일본군 유인한 이름 모를 독립군들 이야기 역사가 스포일러... 일제불매운동 시기 맞물려 흥행성공 주목

은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일본군을 유인한다.

"일제강점기에도 저항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원신연 감독의 말처럼 정규 훈련도 받지 않은 독립군들은 일본군에 맞서면서도 밀리지 않는 전력을 보여준다. 유해진이 연기한 황해철이 항일 대도를 휘두르면 일본군의 목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예상일이고, 류준열이 맡은 이장하는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을 갖춘 데다 달리기까지 빠르다. 유해진의 몸에 부착된 보디캠은 황해철이 칼을 휘두르는 액션 장면을 더욱 실감 나게 한다.

나라를 빼앗긴 설움에 일어난 독립군은 전국 팔도에서 모여 각기 다른 사투리를 쓴다. 염소를 키우다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다가, 마적질을 하다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군에 맞서 싸운다. 일본군은 무자비하게 그려진다. 한민

족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잔인하게 칼로 찢어 죽이는 장면부터 일본군의 잔혹함이 드러난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극 중 일본군이 자기반성하듯 "미개한 것은 일본군이다"라고 언급한다. 군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리는 일본군과, 어린 일본군인을 살려두는 독립군이 대비돼 일본군의 무자비함은 극대화한다.

130분이 넘는 상영시간 대부분은 독립군이 일본군을 봉오동까지 유인하는 과정을 그리는데 할애한다. 기존 역사가 주목하지 않던 이 과정이 깊이 있게 다뤄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액션 장면 등이 반복적이고 길게 묘사돼 집중도가 다소 떨어진다. 이 유인 과정이 결국 마지막 봉오동 전투 장면까지 이어지지만, 관객이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나라 빼앗긴 설움이 우리를 독립군으로 만들었다"는 황해철의 말 등 영화의 메시

지도 대사로 직접 전달돼 관객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한다. 다만, 황해철과 마병구가 서로 주고받는 대사로 영화는 유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봉오동 등 만주를 재현한 로케이션이 눈길을 끈다. 극에서 독립군은 바위 절벽 틈을 뚫어 내려오고 가파른 언덕을 뛰어 올라간다. 독립군과 일본군은 풀숲 사이에서 총격전을 펼친다. 제작진은 실제 봉오동의 지형과 비슷한 곳을 찾기 위해 로케이션에만 15개월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다.

특별출연한 배우들도 눈길을 끈다. 영화 후반부엔 공개되는 홍범도 장군을 맡은 배우는 목적인 존재감을 준다. 무엇보다 영화 개봉이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일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맞물려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역사가 스포일러'인 데다 영화 전개 자체도 예상할 수 있지만, 한국인인 이상 감정 이입할 수밖에 없다.

원신연 감독은 최근 언론사 사회 직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봉일과 최근 한일관계 악화 시기가 겹친 데 대해) 부담이 있다"며 "영화 기획은 5~6년 전이다. 그 당시에는 현실이 이렇게 변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철규, 우즈베크 드라마 '저널리스트' 주연

개그맨 정철규가 우즈베키스탄 드라마 '저널리스트' 주인공으로 낙점돼 정극 연기에 도전한다.

홍보사 우엔컴은 정철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 '저널리스트' 남주인공 박상혁 역을 맡았다고 30일 밝혔다.

드라마는 정철규가 분한 박상혁이 한국에 유학 온 우즈베키스탄 여성 우미다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지만, 우미다가 아이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기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저널리스트'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채널 MY5에서 매주 평일 저녁 방송되며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철규는 "현재 다문화 이해 교육 전 인기를 얻었다." /연합뉴스



문 강사로 활동 중이지만 국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연기해보니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도 방송과 다문화 강사를 병행하며 꾸준한 활동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철규는 과거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를 연기해 인기를 얻었다. /연합뉴스

JTBC 예능 '혼족어플' 내달 첫방송



MC 전현무... 김희철 등 출연

JTBC는 다음 달 3일 오후 6시 10분 새 예능 프로그램 '혼족어플'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혼자 생활을 즐기는

스타들의 일상, 정보, 친목 등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는 내용이다.

MC로는 전현무가 나서며 배우 강한나, 가수 민경훈, 김희철, 제아, 안젤리나 다닐로바 등이 출연해 사생활을 시청자들과 공유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여름특선 다큐멘터리 3일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특선 인간극장	00 생생정보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을(재)	00 저스티스(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키티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신입사관 구해령(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2018 국제엔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기억, 마주서다>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꼬마들 도도 2 50 빠샤 메가드	
[4]	00 2019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어머의 바탕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쏠!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최충우돌 한국 유망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특선 다큐멘터리 다이너스티, 아생의 지배자들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00 저스티스	05 살맛나는 세상	00 닥터탐정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썸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여름특집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TV는 사랑을 싣고(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00 로보카 폴리	13:00 지식채널e	19:30 생방송 판다다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페파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물 만난 아시아 3부 이렇게 좋을 수(水)가 베트남, 필리핀>
08:00 덩동댕 유치원1~2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30 한국기행
08:30 몬카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우리 동네 피서 명당 3부>
08:45 최고! 호기심딱지 시즌4	15:45 출동! 슈퍼워즈(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 호기심딱지 시즌4(재)	22:45 극한직업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6:30 덩동댕 유치원1~2(재)	24:50 글로벌 특선다큐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지켜보는 것이 낫다. 48년생 지혜가 있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 60년생 이탈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72년생 핵심보다는 부수적인 곳에 문 제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84년생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8, 25</p> <p>37년생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49년생 구체적인 것 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라. 61년생 순조롭게 전개 될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73년생 현황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85년생 터무니없는 소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92, 71</p> <p>38년생 집중적으로 매진하는 것이 옳다. 50년생 조금씩이지만 기운은 발전적이고 세차도다. 62년생 용이 물을 얻은 격이니 만사형통 하리라. 74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86년생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47, 93</p> <p>39년생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무리하지 말자. 51년생 갑론을박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복잡다단한 형상을 이룬다. 63년생 들여다보고만 있지 말고 결단을 내릴 때이다. 75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허술하다. 87년생 일순간에 반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80, 28</p> <p>40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다 헤쳐 나갈 수 있다. 52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64년생 해결하기 곤란한 고민거리가 보인다. 76년생 치우치면 설득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88년생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3, 01</p> <p>41년생 목이 마를 때 물을 갖다 주는 이가 보인다. 53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 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65년생 부담스럽다면 애초에 감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 77년생 평상시에 갖추고 있어야 제 때에 활용할 수 있다. 89년생 임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11, 96</p>	<p>42년생 본래대로 행하라. 54년생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게 된다. 66년생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일취월장하리라. 78년생 만망하여 왔던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90년생 응달에도 햇볕 들 날이 있을 것이니 희망을 잃지 말라. 행운의 숫자 : 98, 65</p> <p>43년생 조용히 처리하자. 55년생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중대사를 망각할 수 있다. 67년생 다소 번거롭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습관화 하자. 79년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91년생 근사치가 될 것이니 만족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78, 48</p> <p>44년생 의외로 들어온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56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의미가 없느니라. 68년생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들이 필요하다. 80년생 서두를수록 시원스런 진척을 보이겠다. 92년생 한 템포만 늦추면 충분히 피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3, 89</p> <p>45년생 고지가 눈앞이니 용기백배 하자. 57년생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69년생 고민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라. 81년생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93년생 근거 없이 짐작만으로 판단한다면 큰 일 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59, 86</p> <p>46년생 다투면 손해수요. 양보하면 복이 되리라. 46년생 손발이 척척 맞아서 순조로움을 더 하겠다. 58년생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70년생 치우쳐 있지는 않나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82년생 집중한다면 성취하리라. 행운의 숫자 : 90, 47</p> <p>47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 해야겠다. 47년생 절적인 향상을 가져 줄 것이다. 59년생 이동해야 하는 입장이다. 71년생 결정적인 판국에서 도움을 주는 이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83년생 길조가 넓은 국면으로 확대되어 가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91, 03</p>
--	--